



곽동희

전국대학야구연합회(KUBA)대표
KBO 야구발전위원회 간사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전공
야구의 산업화, 클럽야구 활성화에 관심
kwakdonghee86@gmail.com

청년들의 야구가 보여준 도전과 꿈, 그리고 미래

#1. 대학클럽야구의 새로운 도전

“선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대학생답게 정정당당히 플레이에 임하겠습니다.”

- 전국대학클럽야구대회 선수 선서 중에서 -

지난 2015년 8월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대학클럽야구대회가 전북 익산에서 개최됐다. 대학클럽야구가 생긴 이래 지역예선을 거쳐서 전국대회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전국 9개 권역에서 본선무대에 진출



대학클럽야구대회 개막식에서 선수선서를 하고 있다



2015.8.20. 전국대학클럽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희대(국제) 라이온스팀

출한 16팀 300여명의 선수단은 일제히 개막식에 섰다. 선수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정규 야구장에서 좋아하는 야구를 통해 전국의 대학팀들과 자웅을 겨루게 되어 한껏 상기된 표정이었고, 그러한 심정을 대회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로 화답했다.

대학클럽야구 최초로 TV 생중계가 된 이 대회 결승전은 경희대 국제캠퍼스 라이온스팀이 서울과학기술대(이하 서울과기대) 히어로즈팀을 8-7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전 해설을 맡은 진필중 위원(현 롯데디자인즈 코치)은 프로야구 못지않은 선수들의 열정과 수준 있는 경기력을 보여준 양 팀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대회 심판위원장으로 참여한 익산리틀야구단 김수완 감독은 “생각보다 수준이 높았다. 심판 판정에 대한 수궁도 빠르고, 젊은이들답게 파이팅이 좋아서 인상 깊었다”고 평했다.

MVP는 대회 내내 투수와 야수를 번갈아가며 뛰어난 활약을 보인 경희대 한지원군이 차지했다. 한지원군은 대회 소감에서 “야구장을 쓸 수 없어 축구장에서 연습했어요.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만큼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에 기쁩니다.” 고 말했다.

한편, 아쉽게 1점차로 패한 서울과기대 감독 송정섭군은 준우승 소감을 묻자 “아쉽지만, 대회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리더의 책임과 희생 그리고 팀워크에 대해서요.” 라고 말했다.

시상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가 끝난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서울 과기대 선수들은 패배의 아쉬움을 말하기보다 야구가 자신들에게 주는 즐거움에 대해 말했다. 투수로 활약한 문창호군은 “야구를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는 동안 고민거리는 모두 잊을 수 있어요. 야구에 빠져서 대학생활을 했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어 좋았습니다.” 고 말했다. 대회 직후 서울과기대 히어로즈팀은 총장의 격려를 받아 학내에서 화제가 됐다는 후문이다.

이 대회는 전국의 대학동아리야구리그 운영자들이 모여서 합동으로 기획되었다는 점에 더욱 의미가 있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만난 적도 없었지만 각지의 동아리리그들은 모두 학생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자체적인 힘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익산에서 열린 전국대학클럽야구대회는 이들의 힘을 모두 모아 열게 된 것이다.

대학클럽야구의 새로운 도전은 이렇게 시작됐다.



2015.8.20. 전국대학클럽야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서울과기대 선수들 모습



서울과기대 총장이 학생들을 직접 초청 격려해 학내에서 화제가 됐다

#2. 47년 역사의 대학클럽야구

2017년 8월, 황성에서 열린 전국대학클럽야구대회에서는 구도 부산의 동아대 야구동아리 ‘알파’가 우승을 차지했다. ‘알파’팀은 올해로 47주년을 맞았다. 오래된 역사 때문일까. 동아대 알파 졸업생 선배들이 부산에서 강원도 황성군까지 달려와 재학생들을 응원했다. 체류비의 상당 부분을 졸업생들이 지원했다는 후문이다. 미처 황성까지 오지 못했던 선배들도 TV 생중계를 통해 후배들의 플레이를 지켜봤다. 아마도 후배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며 무척 뿌듯했을 것이다.

동아대 ‘알파’처럼 47년 역사가 된 팀은 찾기 어렵지만, 전국 500여개의 대학클럽팀 중 30년이 넘는 팀은 매우 흔하다. 이들은 학교 단위나 지역단위로 연합회를 구성해 꾸준히 교류하고 있기도 하다. 수도권의 AUBL (대학아마야구리그), 대전권의 DUBA (대전권대학야구연합회), 전북권의 JBLU (전북대학야구리그), 대구권의 재경리그, 부산권의 재부리그 등이 있다. 이들이 각자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교류한지도 30년이 넘었다. 선배들의 활동을 이어 받아 운영, 심판 등으로 경기에 뛰고 있는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참여하는 팀의 학교에서 운동장을 고르게 차출하지만, 정규 규격의 야구장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백스탑 등의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곳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대부분의 경우 축구장에서 야구경기를 진행한다. 아무래도 야구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아닌 만큼 야구의 묘미를 제대로 즐기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크고 작은 부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요는 꾸준히 있었지만 이와 같은 상태에서 별다른 개선 없이 3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학내에 정규 규격의 야구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전국 20여개 대학에 정규 야구장이 있다. 문제는 캠퍼스와 동떨어져 있거나 캠퍼스내에 있더라도 일반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15년도 우승팀 경희대(국제캠퍼스)도 야구장을 구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야구장을 사용하지 못했다. 15년도 전국대학클럽야구대회에서 지역예선을 포함해 본선까지 연거푸 승리한 경희대 라이온스팀이 정규 야구장에서 연습 한번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야구에는 적합하지 않은 운동장에서 연습 하면서(물론 전문 지도자도 없다) 잦은 불규칙 바운드와 그로 인한 부상의 위협과 매일 싸운다.



2015.1.10. 전국대학클럽야구대회를 기획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전국의 동아리야구리그 운영자들이 모였다. 허구연 위원이 학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2017.8.21. 황성군수기 전국대학클럽야구대회, 동아대 알파가 우승을 차지했다



후배들의 활약은 흠어져 있던 선배들도 하나 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그저 야구가 좋기 때문이다.

#3.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충남대 4학년 박문규군은 전국대회를 손꼽아 기다렸다. 2016년 강진청자배 전국대학클럽야구 대회에 8강에 올랐던 충남대 야구대표팀의 감독을 맡았기 때문이다. 평소에 교내리그에서 다른 팀으로 뛰던 선수들이 전국대회 기간이 되면 학교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된다. 학교를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명예를 지켜야



전국에 있는 500여 동아리야구팀이 이런 환경에서 야구를 하고 있다



열악한 운동장환경에 부상의 위험이 크지만, 그들은 오늘도 연습을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은 눈이 내리고 꽁꽁 얼은 운동장에서 야구리그를 진행하고 있다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정규 구장에서 야구를 할 수 있다는 설렘이 박문규군의 마음속에 교차하고 있다.

충남대 야구대표팀은 교내리그 13개팀의 연합팀이다. 충남대는 대전지역연합회에 가맹해 타대학들과의 교류전에도 참가하지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교내 야구리그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내리그에서 활동하는 재학생 선수만 4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학내 운동장이 5곳이나 되지만 정규 규격의 야구장은 없다. 그나마 백스탑이 설치되어 야구를 할 수 있을만한 장소가 1군데 있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내리그에서 1년 동안 주말을 활용해 약 100게임 정도 소화하고 있지만, 운동장 사용의 우선권이 없는 실정이다. 각종 학교 행사나 타 종목경기가 있으면, 리그 경기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2월에 꽁꽁 얼은 운동장 위에서 경기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이고, 이에 따라 크고 작은 부상자가 매년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충남대 야구리그의 사무국장을 맡은 수의학과 4학년 연기웅 군은 “리그 발전과 홍보를 위해 학교 방송국과 협력해 야구리그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운동장 사용의 우선

권이 없으니 경기 일정을 고정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 일정이 고정되지 않으니 방송국에서도 일정에 맞춰 취재 준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학교측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현재 13팀이 가맹중인데, 리그 가입을 요구하는 팀이 더 생기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운동장 여건상 받을 수 없다. 야구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점이 리그발전의 제약”이라고 꼬집었다.

충남대는 서울대 다음으로 큰 규모의 교내 야구리그를 구성하고 있으며, 1,2부 체제로 활성화되어 있다. 그만큼의 수요가 있지만 시설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학교들도 야구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해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내 대학 중 가장 큰 규모의 교내 야구리그를 보유한 서울대는 후원 등을 통해 최근 야구장시설 개보수 및 야간라이트시설을 갖췄다. 그마저도 야구장이 정규 규격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야구리그는 무려 35개팀, 1,000여명의 재학생이 교내리그에 등록되어 있다.

#4. 야구저변확대, 왜 대학클럽야구인가?

그 동안 야구저변확대를 위해 초,중,고교 클럽야구나 엘리트야구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논의되고 실행되어 왔지만, 대학클럽야구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미 성인이 된 사람이 현실적으로 프로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중,고교 야구 선수들이 일반 대학생으로 진학하는 경우 이들이 지속적으로 야구경기를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초,중,고교 클럽야구 나아가 엘리트 야구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하고, 생애의 주기로 볼 때 실질적으로는 대학시절에 자신의 평생 스포츠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또한 일반 대학생은 보는 야구에 있어서도 프로야구의 고객층이기도 하다. 따라서 야구를 산업으로 본다면, 클럽야구를 단순히 프로야구선수의 잠재적 양성소로만 바라보면 곤란하다. 잠재적 팬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행정, 학계, 에이전트, 미디어, 스폰서십 등 야구와 연관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친 야구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저변과 자양분이 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대학클럽야구가 활성화 된다면 초,중,고교클럽야구를 비롯해 사회인야구, 프로야구까지 저변확대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클럽야구리그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 구장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연간 최소한의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또 외부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관련 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며, 전문 지도자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적인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다. 현재 정규 야구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총 20개 학교이며, 수도권 11개교 등 각 지방에도 권역별로 최소 1개 이상씩의 정규 야구장이 있지만 극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클럽팀이 야구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주 1회만 사용할 수 있다면 동절기를 제외하고 연 35주로 가정할 때, 약 1,400경기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대학들의 총장들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

#5. 대학클럽야구 활성화 방안

2017년 8월, 강원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에서 횡성군수기 전국대학클럽야구대회가 열렸다. 횡성군은



엔딩영상의 올해 테마는 새로운 도전이다. 매년 다른 테마로 대회 이모저모를 스토리텔링 할 계획이다

예산지원을 했고 대회기획부터 운영은 모두 대학생이 했다. 물론 참가팀도 모두 대학생이다. 그야말로 대학생의, 대학생에 의한, 대학생을 위한 대회다. 대학생 운영진들이 자체 제작한 엔딩영상은 대회의 스토리를 담아 페이스북에서 약 4만명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학생들이 야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기획과 운영을 해보면서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한 것이다. 이것은 대학클럽야구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본다.

대학 내 제대로 된 정규야구장 하나 없고,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전국의 대학클럽리그가 30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독립성과 자치성에 있다. 참여 당사자인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운영 하다 보니 비록 예산 규모는 협소하고 운동장여건도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대와 대를 이어 3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대학클럽야구 활성화의 뜻을 가지고 그 동안 많은 기업, 재단 등에서 전국 규모의 대회를 열었지만 일회성 이벤트에 그쳤던 것은 이러한 대학클럽야구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질적인 대학클럽야구의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요구된다.

첫째, 연례적인 전국 대회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대학야구연합회(KUBA)가 3년째 전국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많은 참가팀을 유도하고, 지역예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디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전국대회의 중계와 더불어 대학생들의 활동에 관한 스토리텔링이 미디어를 통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특히 청년실업과 대비되는 청년들의 밝고 건전한 모습 등이 미디어를 통해 발현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없이 스포츠가 성공할 수는 없다.

셋째, 전문 지도자가 필요하다.

나름대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지만, 전문 지도자가 없어 훈련 체계가 주먹구구식이다.

학교 수업과 연계하여 전문 지도자들이 대학 내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면 현재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대학 내 정규 규격의 야구장 건설이 필요하다.

이것이 타 종목과의 형평성으로 어렵다면, 다목적구장이



학교 입장에서 형평의 문제가 걸림돌이라면, 다목적 구장이 좋은 예다. 일본의 학교에서는 매우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자생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대학클럽야구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30년의 역사가 있는 만큼, 대학클럽야구 OB대회 유지 등을 통해 기부금을 마련하거나 대학클럽야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익사업을 전개해서 자체 예산 확보를 통해 동력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전국대회에 대학생들 스스로 운영주체가 되어 행정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위 다섯 가지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병행된다면, 꾸준한 니즈가 있는 만큼 대학클럽야구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6. “한국형 고시엔대회”를 꿈꾸며

“국민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며, 학생 야구는 이 권리를 실현해야 할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자리 매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생 야구는 경제적인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장소이다.”

-원 문 -

国民が等しく教育を受ける権利をもつことは憲法が保障するところであり、学生野球は、この権利を実現すべき学校教育の一環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この意味で、学生野球は経済的な対価を求めず、心と身体を鍛える場である。

- 일본 학생야구현장 전문 중에서 -

일본의 학생야구 현장의 전문을 살펴보면 학생야구의 가치를 교육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패어 정신을 체득하고, 강인한 신체를 단련하는 것을 야구를 지도하는 최우선의 이념으로 하고 있다.



여름고시엔 개막식, 4,021개 중 49개의 팀만이 올 수 있는 영광스런 자리다



일본인들은 프로처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전력을 다하는 고교 선수들의 모습에 감동한다

일본 학생야구의 메카는 역시 고교야구대회다. 일본의 고교야구 이른바 고시엔대회는 국내에서 학원야구의 정상화나, 클럽야구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거론되고 있다. 고시엔대회가 규모나 흥행에서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아마추어 대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교 클럽야구를 근간으로 하고 팀 수가 많다는 점이 비교 대상으로 꼽힌다. 전일본고교야구야구연맹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고교야구팀 숫자가 4,021개에 이른다. 한국은 71개다. 한국은 엘리트야구인테 반해 일본은 클럽야구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일본의 고교야구대회는 2가지로 나뉜다. 마이니치 신문사가 주최하는 전국선발고교야구대회 (센바츠) 이른바 봄 고시엔으로 불리는 대회가 있고, 아사히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소위 여름 고시엔으로 불리는 대회가 있다. 여름 고시엔은 올해로 99회째를 맞았다. 특히 8월에 열리는 여름 고시엔은 일본의 연휴기간과 겹쳐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대회 기간 2주 동안 고시엔구장 5만석이 만석이 되는 경우를 흔하게 찾아 볼 수 있다. 일본의 고교생들에게 고시엔은 일종의 신화다. 프로를 목표로 야구를 한다기보다 고시엔에 나가기 위해 야구를 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07년 사가현의 사가키타고교는 공립학교로서는 매우 드물게 여름 고시엔의 우승팀이 되었다. 언론은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국내라고 가정하면 동아리야구팀이 엘리트 야구부팀을 연이어 격파하고 전국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이기 때문이다. 사가키타고교는 4,000여개의 팀 중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프로 지명을 받은 선수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일본 사람들은 왜 고시엔 열광할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학생다움을 지키는 것에 그 비결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완벽하지 않지만 전력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패배에 굴하지 않는 절도 있는 모습 등 고교생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을 통해 프로와는 다른 고교야구만의 매력을 찾아볼 수 있다. 고시엔의 힘은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야구저변을 넓힐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병행되어야 하지만 대학클럽야구 활성화가 해법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큰 몫을 차지하겠지만 무엇보다 대학클럽야구의 순수성에서 그 이유를 찾고 싶다. 대학클럽야구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학생야구의 가치를 지키면서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순수하게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공정한 야구, 깨끗한 야구의 출발은 순수성에서 비롯된다. 청년들의 순수함과 미래를 만들어 갈 그들의 잠재력을 주목한다면 ‘한국형 고시엔대회’를 만드는 일이 결코 먼 나라 꿈만은 아니라고 확신한다.